

	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4. 12.

CEPA Insight

- 베트남, '세계 30대 수출 강국' 올라...작년 3,540억달러, 전체의 1.5%
- 한국형 산업단지 베트남에 첫 조성..K-신도시 수출로 성과확산
- 베트남, '전기차 인프라' 2030년까지 112억달러 투자 필요
- 베트남,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10월까지 5,246.2조동 8.5% ↑

■ 베트남, '세계 30대 수출 강국' 올라...작년 3,540억달러, 전체의 1.5%

- 2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23조 8,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추산.
- 이중 베트남의 수출액은 3,540억달러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수출액 기준 상위 3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
- 다만,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줄어든 것으로, 특히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라 주력상품 상당수의 수출이 크게 부진한 모습.
- 품목별 감소액은 휴대전화 및 예비부품이 56억1,000만달러로 가장 크게 줄었고, 섬유·의류와 신발 수출이 각각 42억7,000만달러, 36억6,000만달러로 뒤를 이음. 다음으로는 신발과 기계·장비 및 예비부품 26억2,000만달러, 목재 및 목제품 25억4,000만달러, 수산물 19억5,000만달러, 화학 및 화학제품 7억5,000만달러 순으로 감소액이 많았음.

- 반면,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
청과류 수출은 전년대비 22억4,000만달러 늘었고, 뒤이어 자동차 및 예비 부품 수출이 21억7,000만달러 증가. 또한 쌀과 캐슈넛 수출액은 각각 12억2,000만달러, 5억5,800만달러 증가.
- 지난해 30대 수출 경제국 가운데 약 20개국은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세계 무역장벽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해 글로벌 무역규제 건수는 약 3,000개로 2015년보다 5배 가까이 많았음.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2>

■ 한국형 산업단지 베트남에 첫 조성..K-신도시 수출로 성과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2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박닌성(Bac Ninh)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
-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컨소시엄(지분 75%)과 베트남 TDH에코랜드(25%)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의 편의를 위해 143만1,000m²(43만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
-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에 산업도시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Hung Yen) '클린 산업 단지'는 143만1,000m²(43만평)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컨소시엄과 베트남 TDH에코랜드) 합작법인이 조성한 것으로 국내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날 LH와 흥옌성간 체결한 '제2산단 개발협력 MOU'를 토대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흥옌성이 제안한 후보지 4곳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추가적인 산단 개발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도시개발협력프로그램(UGPP)에 근거해 1호 사업으로 진행중인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을 본격추진의 일환으로 25일 LH와 사업에 관심이 있는 20여개 공공·민간기업간 예비협약을 체결.
-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인근의 핵심경제지역인 박닌성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박닌성 당국은 초기부터 국토부·LH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획계획(1/2000 축척)을 고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85>

■ 베트남, '전기차인프라' 2030년까지 112억달러 투자 필요

- 베트남이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할 금액이 112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세계은행(WB)은 최근 내놓은 '전기차 전환에 관한 로드맵 및 국가행동 계획 권고안'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전력산업 투자 확대 등을 정부에 권고. 2030년까지 충전망과 전력망 확충에 각각 90억달러, 22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베트남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도시 운행차량 50%와 모든 버스·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나아가 2050년까지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 자동차로의 완전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충전기기 수요 증가는 대부분 전기오토바이가 차지하고, 2030년 이후 전기차(상용차 포함) 충전용 고정형 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세계은행은 이러한 충전망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22억달러, 2040년과 2050년까지 각각 139억달러, 326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국영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포트(충전기)는 15만개에 이르나, 이 중 대부분은 아파트와 쇼핑몰·주차장·주유소 등에 집중돼, 고속도로 충전망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 세계은행은 충전망 확충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 전기차 충전은 곧 전력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에서 예측된 전력수요 증가분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것.
-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기차가 필요하나, 지난해 승인된 PDP8의 전력수요 예측분에는 주로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등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적은 운송수단이 포함됐을 뿐, 급증할 전기차 충전에 대한 수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
- 세계은행은 PDP8 추정치와 비교해 향후 발전량 추가와 전력망 확충 등 전력산업에 2030년까지 최대 90억달러, 2031~2050년 기간 연평균 14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 세계은행은 “베트남은 야심찬 전기차 전환 목표를 갖고있다”며 “이러한 정부 목표가 달성될 경우 탄소배출 감축량은 2030년 목표의 8%인 530만 톤, 2050년에 목표의 60%인 2억2,600만톤에 이르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최대 64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7>

■ 베트남,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10월까지 5,246.2조동 8.5% ↑

- 11일 통계총국(GS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품 소매·서비스 매출은 545조7,000억동(215억8,025만여달러)으로 전월대비 2.4%,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 올들어 10월까지 상품 소매·서비스 매출은 5,246조2,000억동(2,074억6,622만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 이는 전년동기(9.8%) 증가율을 밑도는 것으로, 특히 물가 요인을 제외한 증가율은 4.6%로 전년동기(7.3%) 수준에 크게 못미쳤음.
- 부문별로는 상품소매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8% 늘어난 4,048조6,000억동(1,601억593만여달러)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고,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는 602조3,000억동(238억1,855만여달러)으로 12.5% 늘어 전체의 11.5%를 차지.
- 또한 기타서비스 매출은 9% 늘어난 545조동(215억5,257만여달러)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고, 관광 매출이 50조3,000억동(19억8,916만여달러)으로 14.2% 증가.
- 상품 소매 매출 가운데 음식 및 식료품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했고, 뒤이어 의류 8.7%, 가전제품 및 도구 8%, 차량(자동차 제외) 7.5%, 문화 및 교육용품 6.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음.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3>